

의정칼럼



강수현  
광주시의원

광주 군공항 이전, 햇볕정책이 필요하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역의 최대 현안이자 시대적 과제다. 지난해 4월 종전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 '정부 재정 지원'을 핵심으로 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광주의 군공항 이전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했다.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도로 곳곳에는 환영 현수막이 내걸렸다.

그런데 여전히 광주 군공항 이전은 지지부진이다.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만나서 광주·민간 공항을 무안으로 통합·이전하겠다는 공동발표를 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2018년 이후 6년 만에 광주시장·전남도지사·무안군수가 함께 자리한 이른바 '3자 회담'도 열렸지만, 결국 빈손 회담으로 마무리됐다.

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무안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군 공항을 받을 수 없고,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만을 밝혔다고 전했다. 좋다! 이제 무안군수의 생각을 명확하게 확인했으니, 광주시는 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무안군수 역시 군민의 마음을 얻어야 할 선출직 정치인이라는 점을 적극 활용

해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심이다.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 한 사람인 링컨 대통령이 그 중요성에 대해 "민심과 함께하면 실패할 것이 없고 함께 하지 않으면 성공할 것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제 광주시는 무안군수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무안군민 민심 얻기 작전'을 과감하고, 섬세하게 펼쳐야 한다. 9만2천여명의 무안군민 대부분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북관계에서 펼쳤던 햇볕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

김대중 정부는 적극적인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남북한 불신의 벽을 허무는데 성공했다. 북한의 힘없고 이음없는 동포들에게 전쟁의 위험과 경제적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한 햇볕정책으로 북한은 마음의 문을 열게 됐고, 그 연장선상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까지 성사됐다. 남북관계가 반쪽에서 화해의 장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특히 광주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두 가지 부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갈등의 확대 재생산 방지와 민간교류 협력의 증대를 통한 관계 개선이다.

그동안 광주시와 무안군 사이에 있었던 반목과 갈등은 종지부를 찍고, 이제부터 형제도시가 돼 상생발전을 위해 맞손을 잡자고 선언하자. 광주시가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용기있게 손을 내밀자. 그리고 그 손은 단 한명의 무안군수가 아니라, 9만2천여명의 무안군민 모두를 향해 있어야 한다. 나

아가 남북관계에서 민간교류 차원의 다양한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했던 것처럼, 광주시가 갖고 있는 공공 역량은 물론 기업과 민간 단체를 총동원해서 무안군과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쌀값이 폭락해 있으면 무안군 농업인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무안 쌀 사주기 운동을 전개해보자. 생태계 변화로 생업의 위기를 맞고 있는 무안 어업인들을 위해 광주시 차원에서 수산정책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연대해 각종 공직자 워크숍도 무안에서 실시해보자. 광주관광공사 주도로 무안군에서 먹고, 자고, 소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기획해보자.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

무안군민 한명 한명의 이름을 기억하고, 마음을 얻는다는 생각으로 진심을 다해보자. 무안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고 의심하지 말자. 광주 군공항 이전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할 것 없이 모든 후보가 우선순위로 정한 핵심 공약사업이었다. 자칫 시기를 놓치면 영원히 못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옥역을 각오로 진행한 대북투자,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북,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되새겨보자.

지금까지 광주시가 했던 무안 양파 농가 돕기와 장터 및 상가 홍보로는 여전히 부족하고, 또 부족하다. 광주시가 진심을 다하면 무안군민의 마음이 바뀌고, 무안군민의 마음이 변하면 무안군수도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 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社說

호남권 대표 관광지의 면모 확인한 대인예술시장

광주를 대표하는 아시안 대인예술시장 방문객이 20만명에 달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25일부터 11월16일까지 총 12차례 시즌4마지막까지 성황을 이뤘다. 특별한 감동을 선물하는 호남권 예술관광형 시장의 위상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인예술시장은 문화를 접목, 원도심과 시장의 유동인구 증대를 통해 활력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지역 예술가를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의 야심찬 콘서트 사업으로 특히 올해는 남달랐다. 매 시즌마다 한국형 호러체험, Y2K 레트로, 한가위 전통놀이 등 특색있는 콘텐츠를 선보여 매회 1만5천명 넘는 인원이 찾았다. 시장만의 추억 먹거리와 버스킹 공연, 가족 방문객을 위한 도예, 보드게임존 등 여러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었다.

10명의 작가들에게 창작 공간과 활동을 지원해 주는 레지던시 사업을 통해서도 역동적인 활동을 유도해 대한민국디지털문화대전 대상 수상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 '한평갈래리'는 무료 전시회를 7차례 열어 예술시장으로서의 면모가

빛났다. 특히 10월과 11월 시은 작가와 정상윤 작가는 현장에서 드로잉 라이브를 선보여 주목받았다.

문화부의 지역문화매력 '로컬 100'에 선정된 대인예술시장이 토요일 밤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 볼거리가 있는 축제의 무대로 거듭났다. 시즌마다 특색있는 아이টে이머 화려한 색깔을 입혔다. 시즌3에선 해외 관광객 대상으로 '투어 도슨트'를 무료 운영했다. 또 광주비엔날레와 결합한 상품을 국내 여행 플랫폼에서 선보여 문화행사 간 협업과 공동 마케팅의 새로운 모델로 떠올랐다.

광주를 넘어 전국적인 관광지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차별화된 문화예술, 이색적인 관광상품, 다채로운 음식을 버무려 대인예술시장 이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아시아 거점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앞으로 수준높은 공연·전시와 함께 잊지 못할 체험까지 만끽할 수 있도록 더욱 확장해야 하는 것이다. 더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더욱더 많이 발굴해야 한다. 지속적인 흥행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교 통학로 폐쇄 해결에 광주교육청도 적극 나서야

광주시 남구 주월동 소재 학교법인 흥복학원 산하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정문에 약 3m 폭의 컨테이너가 놓여 왕복 2차선 도로 중 한 차선을 점유했다. 두 통학로 일부 폐쇄에 학생들은 통행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급격한 경사로여서 등하교 시간에 사고 우려도 안고 있다. 게다가 지적에는 지역주택조합 공사로 인한 안전망까지 설치돼 아슬아슬하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관련 TF팀을 꾸려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으나 사립학교 재산에 대해 제재할 마땅한 규정 근거가 없어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법인과 민간 개발업체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컨테이너는 광주 한 개발업체가 지난 2016년 흥복학원 소유의 대광여고 앞 폐건물 부지를 매입했는데, 여기에 포함된 대광여고·서진여고 통학로 일부와 담배락 등을 인도받기 위해 강제집행에 나서면서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2017년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해 2019년 승소했고, 2022년 교육부와 광주교육청으로부터 토지 등기교환에 대해 긍정 답변을 받

았지만 학원 이사회에서 안전에 대해 결정을 하지 않아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흥복학원은 설립자가 교비 횡령 등 사학 비리로 구속 수감되면서 2015년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된 상태다. 이사회는 개인의 사유지를 임의로 교환하는 행위는 헌법상 불가하다는 법률 해석이 있어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아이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안전사고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물론 급식차량 운행에도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조속히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학교 설립자가 결자해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계 기관도 더욱 전향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 또한 적극 중재를 시도하는 등 의지를 보이길 바란다.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인위적인 장애물인 만큼 의외로 쉽게 풀릴 가능성도 있다. 학생들의 불편을 인지하고 안전 사고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서둘러야 하지 않겠나.

기고



홍인기  
한국학호남진흥원 원장

목포대·순천대의 지혜로운 통합 결정에 '큰 박수'

10년 넘게 고향이 아닌 구례 자그마한 마을에 살고 있다. 지리산과 섬진강이 있다. 또 화엄사와 운조루, 그리고 산수유와 벚꽃, 녹차가 있다. 너무 만족스럽다. 전남에 이런 곳이 어디 구례뿐이겠는가.

다만 세월이 흐를수록 한 가지 염려가 있기는 하다. 응급상황이다. 물론 구례는 순천이라는 도시를 가까이 두고 있어 그나마 걱정이 덜하다.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고령화된 지역인 전남에서 응급·필수 의료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건강권과 생명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남 사람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의대 유치에 푹몰랐다. 공동 건의문도 내고, 자발적인 유치 성명서 등 한 목소리로 열망을 전했다. 그렇게 해서 지난 3월 대통령 발인과 정부 합동 담화문에서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공식화하는 쾌거를 이뤘다. 무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결같은

노력으로 얻어낸 눈물겨운 결실이었다. 그러나 이후 과정은 순탄치가 않았다. 오히려 동부와 서부로 나뉘어 파열음만 고조됐다. 하여 지난 7월29일 광주매일신문에 '국립 의대 유치, 지혜로운 책문·도민의 인화 질실'이라는 주제로 칼럼을 게재한 바 있다. 조선시대 과거(科擧)시험의 문제와 답안지인 책문을 예로 들며 '국립의대 유치를 통해 도민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만한 해안이 도출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호소했다. 당시에는 이 소망이 이렇게 빨리, 기대를 뛰어넘는 결실로 맺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지난 15일 저녁 국립 목포대학교 송하철 총장과 국립 순천대학교 이병은 총장이 전남 지역의 숙원인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대학 통합과 통합 의대 추진에 적극적으로 합의했다. 두 대학은 동등한 조건을 바탕으로 대학을 통합하고 의과대학을 설치해 전남 동·서부 주민 모두의 의료 기본권을 보장하는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025년 3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전에 어디에서도 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역사적이고 대승적인 합의였다. 당연히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물론이고 각종 기관과 단체들의 환영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재직하고 있는 한국학호남진흥원도 마찬가지다.

두 대학의 통합은 극적인 합의만큼이나 다 양하고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통합의대와 동 서부 지역에 각각 대학병원을 설립함으로써 전남 전역의 의료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도민 모두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한다.

통합 이후 발표된 내용에도 뜻이 정부의 글로벌 대학에 선정된 두 대학이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수도권 대학에 절대 뒤지지 않는 글로벌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전국 최초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다. 결국 통합 대학과 지역 전략산업을 연계한 글로벌 프로젝트 사업과 지역대학 혁신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인재들에게도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더 좋고 많은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전남 동·서부 간 오랜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과 통합의 모범을 세웠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이는 향후 전남이 직면한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속 성장을 이루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다. 신속하게 나서서 전남 의과대학 신설 약속을 이행해줘야 할 때이다. 전남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하루 빨리 보장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기대한다.

독자투고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다. 특히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난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비가 바로 '완강기'다.

완강기는 119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고층에서 자력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 장비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완강기의 중요성은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사용법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화재 발생 시 완강기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는 것은 생명을 보호하는 사전 준비의 중요한 일안이다.

완강기 사용법을 미리 익히는 것은 다음과

화재 대비 필수 장비 '완강기'...사용법 숙지 필수

같은 이유에서 중요하다. 첫째, 화재 발생 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다. 둘째, 고층 건물에서는 대피 경로가 연기나 불길로 인해 차단될 위험이 크다. 이때 창문을 통해 완강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사용법을 숙지하면 신체적으로 무리가 가지않게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다.

각 건물에 설치된 완강기의 구조와 작동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건물의 완강기 사용법을 숙지해 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건물 관리자와 주민들의 협력도 중요하다. 안전한 대피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리자는 정기적인 장비 점검과 사용법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주민들도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숙지하고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주민들은 각자의 거주지에서 완강기 사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실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화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재난이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 대비가 필수적이다. 완강기는 고층 건물에서의 중요한 피난 수단으로, 정확한 사용법을 숙지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가능하다.

일상 속에서 완강기 사용법을 숙지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한 안전 지침을 넘어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행위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박철형·담양소방서 대응구조과장>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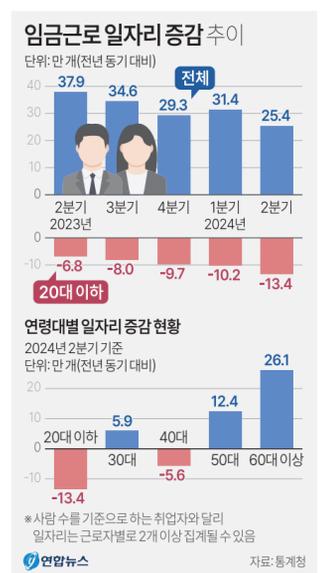
그래픽 뉴스

'내수 한파' 청년·40대 일자리 직격...고령층은 늘어

2분기 도소매업·건설업 등 내수 업황 부진 여파로 100세대와 40대 임금 일자리가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 감소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2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5만4천개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2분기 21만천개 늘어난 뒤로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연령별로 보면 30세 미만 일자리가 13만1천개 줄어 2017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 감소를 기록했다. 40대도 5만6천개 줄면서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폭 감소했다. 반면 60대 이상(26만1천개), 50대(12만4천개), 30대(5만9천개)에서는 증가했다. 10·20대와 40대 일자리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은 도소매업·건설업 등 내수 업황 부진과 관련이 깊다.

도소매 일자리는 1년 전보다 5천개 늘며 전분기(1만5천개)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다. 건설업 일자리는 3만1천개 줄며 3분기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부동산업(-8천개)도 일자리가 5개 분기째 줄고 있다.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 중 작년 2분기와 같은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천49만1천개로 전체의 71.7%를 차지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650-2016
정치부 650-2030	사신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부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입부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고시사항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10(가)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